

‘포스트민주화’ 담론으로 떠오른 박정희 담론

‘민주화시대’ 낡은 철학 고집하는 정치에 경종



글_ 박효중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절박한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박정희 담론

요즘 박정희 담론이 뜨고 있다. 박정희를 다루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 인기상품이 나오면, 관심이 집중되는 법인데, 왜 그럴까. 박정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풍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작은 거인’ 과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삼 그를 그리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담론형성은 ‘지금과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관심사에서 시작한다. 그 관심사의 단초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관심사의 기원은 언제나 현존재적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근대 서구사회에서 그리스와 로마가 르네상스의 담론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근대를 살았던 서구인들은 인간의 가치에 기초를 둔 ‘휴머니즘’을 갈구했고 그것의 원천을 찾다보니 이미 사라진 그리스·로마문화에서 눈길을 땔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담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치 비전에 관한 고민이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통적인 박정희 담론의 내용은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었다. 정치는 죽이고 경제는 살렸다는지, 민주주의는 후퇴했는데, 경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박정희 담론은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는 데 맞추어졌다. 비판적 시각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겨냥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적어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혹은 경제개발보다 민주주의를 선행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냐는 것이다. 민중부문에 대하여 억압과 배제를 강요한다면 누군들 경제개발을 못하겠느냐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선(先)경제개발·후(後)정치발전론’으로 특장

지어지는 박정희의 선택은 선견지명을 가진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또 독재를 한다고 해서 경제개발을 성공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정치의 본질에 관한 것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박정희 담론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관계보다는 정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각종 자유와 권리에 익숙해졌고 또 선거민주주의를 통해 5년마다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역설적인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 결실이 만족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소박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참여민주주의’니, ‘토론민주주의’니, ‘전자민주주의’니 하면서 협치(協治)와 같은 매력적인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느새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지금의 정치는 누가 뭐래도 ‘마케팅정치’다.

감성이든 이벤트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유권자들로부터 멋있게 보이고 표를 얻는 ‘이미지 정치’가 어느새 정치의 본질이 된 것이다. 여론조사에 민감한 통계정치도 정치의 최대관심사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들의 인기도가 발표되면 일희일비하니, 정치는 연예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권력을 잡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뒷전이고 무슨 수를 쓰든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한 일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일부러 속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선거의 화려한 구호에서 인상적이었던 정책들은 일단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실제의 의미를 찾아내면 실재적으로 드러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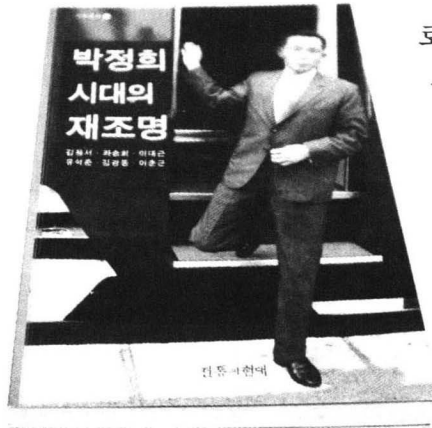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박정희는 정치의 본질이 먹고 살게 해 주는 일에 있다고 믿었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효과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정경분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흔히 먹고사는 문제는 경제 영역으로 치부하고, 정치는 개혁의 문제, 권력 유지의 문제 혹은 정의집행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물론 정치를 경제와 따로 떼어 생각했던 고전적 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는 토론과 협의였고 또 웅변이고 수사였다. 그래서 정치는 여가를 가진 남자들의 활동무대였다. 경제는 노예나 여자들의 일이었다. 이미 어원부터가 그렇다. 영어 Economy의 어원이 된 경제는 집을 의미하는 Oikos와 Nomos의 합성어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가정경제인 셈이다. 이에 비하면 정치를 뜻하는 Politics는 국가를 의미하는 Polis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공동체에 관한 관심사로서 정의를 말하고 추상적인 이상과 고담준론을 하는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생각한 것이다.

박정희는 그런 정치의 비전을 바꾸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헛된 기대를 부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럴싸한 말만 하는 것, 이상과 개혁만 부르짖는 것, 사람들의 표심만 잡으려고 이미지 관리에 '올인'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치의 '주변머리' 일지언정 '속알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리더십에 관한 함의

박정희 담론이 유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리더십에 관한 함의다.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 플라톤은 《이상국가》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그 국가를 용기있는 국가나 지혜있는 국가로 만든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혜



로운 국가나 용기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소수 엘리트 혹은 리더의 역할이다. 박정희는 평균을 넘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점은 박정희 비판자나 지지자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욕구가 지금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담론의 실체는 분명해진 것이다. '민주주의나 독재냐'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민주정치가 탁월한 사람들에게 의한, 이른바 '아리스토크라시 (aristocracy)' 나, 아니면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의한 '카키스토크라시 (kakistocracy)' 나 하는 문제에 봉착해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된 다음 우리는 '포스트민주화'의 담론과 이상에 굶주려 있다. 그것은 민주화라는 하나의 이상이 실현된 다음 느끼는 허무함과 같은 것이다. 박정희 담론이야말로 바로 '포스트민주화'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질 (quality of democracy)' 에 고민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박정희의 정치를 보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분명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치'를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갖는 필요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였다. 결국 박정희 담론은 '포스트민주화'의 시대에도 '민주화 시대'의 낡은 철학만을 고집하는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